

광주 실업급여 수급자 '50대 이상'이 절반 넘어

올 1월 53%...제도 시행 약 30년만 처음
2월도 절반 ↑...중년 등 고용 불안 심화
"퇴직했지만 돈 나갈 곳 다" 재취업 희망
김수진 노무사 "이직 지원 등 체계화 必"

실업급여 제도 도입 약 30년 만에 광주 지역 수급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지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심화와 경제 활동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9일 고용행정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만7천48명이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60대(4천996명·29.3%)였다. 그 뒤는 ▲50대(3천826명·22.44%) ▲30대(2천758명·16.17%) ▲20대(2천618명·15.35%) ▲40대(2천587명·15.17%) ▲70세 이상(244명·1.43%) ▲10대(19명·0.11%) 순이었다.
1997년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도입된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간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정해지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구직활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은 20~40대의 비중이 늘 과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1월 50대 이상이 53.17%를 차지하며 실업급여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이는 최근 들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10년 전인 2016년 1월 50대 이상 수급자는 43.48%가량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21년 1월에 45.49%였던 걸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또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체 수급자 1만7천670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54.21%에 달하는 9천580명으로 집계되면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들은 정년 퇴직과 폐업,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생계 부담 속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퇴직했다는 유모(60대)씨는 "정년으로 퇴직했지만 아직 돈 나갈 곳이 많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희망한다"며 "알아보니 경비직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센터를 운영했다는 김모(50대)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가게를 접었다"며 "이 나이에 부모님 손을 빌릴 수도 없고 당분간은 실업급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동계에선 이러한 현상이 광주의 산업 구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비스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건설업 경기 침

체까지 겹치면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진 든든노무사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기존에는 정년 퇴직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자영업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년층이 더 이상 안정적인 울타리에 머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광주는 서비스업 및 건설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이직·전직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지역특화형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상 기자

강풍·풍랑주의보에 여객선·항공기 발 묶여

전남 31개 항로·52척 통제
제주-광주편 등 23대 결항
빗길 사고·나무 쓰러짐 등도

광주-전남에 폭우와 함께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돼 여객선·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해남·영암·무안 등 전남 20여개 지역에 강풍특보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등 거의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돼 해상 사고 위험이 우려될 때 발효되는 기상특보다.

이에 오후 5시 기준 전남을 지나는 여객선은 총 51개 항로 78척 중 31개 항로 52척이 통제됐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제주 일대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어지며 광주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12편, 제주에서 광주로 오는 11편 등 총 23편의 비행기가 결항했다.
구례·고흥·신안 등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5시 기준 일일 누적 강수량은 장흥이 126.5mm로 가장 많았으며 고흥 88.5mm, 해남 83.5mm, 강진 82mm, 광주 남구 34.5mm 등으로 집계됐다.
신안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39.8%의 강풍도 불었다.
이날 강풍과 비로 인해 광주 9건, 전남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 서구 덕흥동에서는 오후 2시30분께 빗길에 8트럭이 전도돼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

송됐으며 곡성, 나주에서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광주 남구 월산동과 영암 군서면에서는 나무 쓰러짐 신고가, 담양에서는 간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GGM 노조, 오늘 4시간 경고파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 행위와 임금·단체협약 교섭 갈등 등을 이유로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9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GGM지회는 10일 오후 12시20분부터 4시20분까지 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참여 인원은 200여명으로 예상되며 공장 가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 규모에 달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노조 홍보물 무단 철거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측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도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용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와 고(故) 정창희씨의 차남 정종오(왼쪽)씨가 9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을 방문했으나 관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건물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문전박대

'미쓰비시중' 정신영 할머니 면담 거부
일본제철은 진입 불허... "사죄하라" 촉구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사죄를 촉구하러 간 정신영(96)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 할머니는 이날 오전 11시께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담당자 3명 중 2명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1명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 할머니는 "도망갔으면 내가 여기서 자고 가련다"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끝내 면담에 응하지 않자 건물 바깥에서 사죄를 촉구해야만 했다.
정오께 이동한 일본제철 본사에서 로비 입장까지 가로막아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전범 기업들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뜻을 이루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오후 4시 국회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원내집회에 참석해 한을 토해냈다.
정 할머니는 "이대로는 못 죽겠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열변했다. /서형우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어청
상품등록: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